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및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

Child Difficult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 as Predictors of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 수 박 성 연*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연구소

연구 원 이 은 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 사 배 주 희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Park, Seong-Yeon

Human Ecology &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

Researcher : Lee, Eun-G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Bae, Ju-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difficult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 negative emotion on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Mothers of 253 preschoolers(Mage=4.04y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child temperament, mothers' reactions to child negative emotion,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1) child difficult temperament positively predicted child's aggressive or outburst/appealing strategies whereas negatively predicted avoidance/none strategy; 2) child difficult temperament was not the variable predicting positive coping strategy, but mothers' emotion-focused or problem-focused reactions predicted child positive coping strategy whereas punitive or distress reactions predicted either aggressive or avoidance/none strategy; 3) child temperament moderated the link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particular, children with higher difficult temperament showed higher aggressive strategy under mothers' higher distress or punitive reaction and lower emotion focused or problem focused reaction. On the other hand, children with lower difficult temperament only showed avoidance/none strategy when mothers showed higher minimization or punitive reacti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underscore both child temperament, mothers' reactions and their interactions in predicting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주요어(Key Words) : 기질(temperament),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mother's reaction to child negative emotion), 정서조절전략 (emotion regulation strategy)

* 주저자 · 교신저자 : 박성연 (E-mail : psy@ewha.ac.kr)

I. 서론

유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와 함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Conway, 2005). 기쁨, 행복함,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는 유아에게 평안과 안정된 느낌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분노, 두려움, 슬픔, 혐오 등 부정적 정서는 유아에게 언짢은 느낌을 주고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유아는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적응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도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6).

인간은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줄임으로써 조절하고자 한다.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유아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좌절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이며 친사회적 능력이 낮다(박혜경 · 박성연, 2002; 한유진, 2007). 그러므로 정서조절 능력은 유아의 정서발달, 성격형성,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한 이해는 바람직한 정서발달은 물론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서조절 능력이란 주의조절(attentional control)과 행동조절(behavioral control)을 포함하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능력이며(Denham et al., 1997), 대체로 정서조절전략과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능력'은 정도를 측정하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반해, '전략'은 구체적이고 표현적인 대처행동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보다 실질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전략들'(Calkins et al., 1999) 또는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 전략들'(임희수 · 박성연, 2002)로 정의되는 정서조절전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정서조절전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크게 유아 개인적 요인과 대인간 요인으로 나누어 진다. 개인적 요인 중 하나인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잠재적 반응의 범위를 강화하거나 제한하게 되므로(Carson et al., 1991), 유아의 정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행동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적응적이고 기분이 항상 밝고 명랑하며 주의집중력이 높은 기질의 아이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 일으킬만한 상황에서도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거

나 지지를 추구하는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활동적인 기질의 유아는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조절이나 대처방식에서 보다 취약성을 보인다(임희수 · 박성연, 2002; 박지숙 · 박성연, 2008).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부정적 정서나 정서적 강도가 높을수록 분노나 공격적인 조절전략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지윤 등, 2008; 박지숙 등, 2009; Eisenberg, 2000; Fabes & Eisenberg, 1992; Garner & Power, 1996). 반면 주의력 조절 능력(effortful control)은 스트레스와 좌절에 대한 유아의 대처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임희수 · 박성연, 2002; Eisenberg, 2006; Miller & Green, 1985).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 중 특히 정서적인 반응강도나 부정적인 정서, 활동성 또는 주의력 조절능력이 유아의 정서 표현 행동이나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질적 특성임을 시사한다.

정서조절전략은 기질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모의 행동 등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즉 사회화 대행자인 부모는 유아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장려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가르침으로 직간접적으로 바람직한 정서조절방식을 학습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유아의 정서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거나 처벌적, 또는 최소화 하는 등의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격성이나 회피행동 등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노지영 · 정윤경, 2010; 박유경, 2009; 서혜린 · 이영, 2008; Denham et al., 1997). 즉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최소화 반응은 감정발산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무반응이나 회피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희연 · 강문희, 1999; Eisenberg et al., 1996; Krause et al., 2003). 또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은 회피적이거나 보복 행동 및 파괴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박유경, 2009; 임희수 · 박성연, 2002; Eisenberg et al., 1998).

반면,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체로 긍정적인 대처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문신 · 김광웅, 2003; 서혜린 · 이영, 2008).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해주는 정서중심적 반응이나 문제중심적 반응은 유아의 긍정적인 대처능력을 기르게 된다(강희연 · 강문희, 1999; Eisenberg & Fabes, 1994; Hardy et al., 1993; Kliewer et al., 1996).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이 유아가 정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Fabes 등(2003)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부모가 유아의 감정표현에 수용적

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배우거나 모델링함으로써 스스로 긍정적 정서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양육 태도는 역기능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다 해도 긍정적인 정서조절행동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노지영·정윤경, 2010)가 있는가하면,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오히려 분노나 공격성이 증가하여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Eisenberg et al., 1992; Eisenberg & Fabes, 1994).

한편, 아동의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Dual Risk Model(Barry et al., 2008)에 의하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은 부정적인 환경 하에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긍정적인 환경 하에서 그 위험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결코 취약하지 않은 일반 아동보다 더 나은 발달적 결과를 보이지는 못한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유아는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는 까다로운 기질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구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지지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전략 간의 관계가 약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노지영·정윤경, 2010)은 기질의 중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이 점점 중요해 지는 시기인 유아들의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아동의 기질과 정서조절 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등 두 변인 간의 단순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기질과 어머니 반응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관한 이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되도록 특정상황에서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Davidov & Grusec,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서관련 연구들은 정서적 조절이 야기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반응행동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양육행동을 다루고 있다. 더욱이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을 연구한 경우라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구분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머니의 반응유형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중재변인으로 하여 두 변인이 각각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어머니의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가 아동의 기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독립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에 위치한 5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253명(남아 125명, 여아 128명)과 그 어머니들이다. 유아의 평균연령은 4.04세(SD=.67),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5.3(SD=3.9)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부분(75.9%)이 대학졸업이상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머니의 66%가 '중'으로 지각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유아의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부모보고 질문지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교사보고 질문지이다.

1) 유아의 기질 척도

유아의 기질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정서조절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 하위요인인 정서적 강도, 부정적 정서 및 주의력 조절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였다. 이중 '정서적 강도'는 Larsen과 Diener(1987)의 Affective Intensity Scale을, '부정적 정서'와 '주의력 조절'은 Derry-berry와 Rothbart(1988)의 Temperament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기질척도는 '정서적 강도(8문항)', '부정적 정서(14문항)', '주의력 조절(7문항)'의 세 개 하위요인의 총 29문항으로 되어 있다. 정서적 강도(intensity of emotion)는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성 정도와 반응강도를 의미하며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질적 특성이다(문항 예: 아이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는 두려움이나 슬픔 등이 강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문항 예: 어두운 방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쉽게 우는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주의력 조절(attentional control)은 외부자극에 대해 하던 행동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통제력을 뜻한다(문항 예: 집중해서 해결할 과제를 할 때 빨리 주의를 집중해서 그 일을 끝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r = -.76 \sim .91$ 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변인들 사이에 다중공산성이 우려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양병화, 2006). 이 과정에서 주의력 조절은 역 점수화하여 이 세 변인(부정적 정서, 정서적 강도, 주의력 조절능력)의 점수를 합한 평균을 까다로운 기질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질적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된 '까다로운 기질'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척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Fabes 등(1990)의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12가지 상황(예: 슬픔, 분노 등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6가지 반응유형을 측정하게 된다. Fabes 등에 의하면, 6가지 반응유형에는 지지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표현 격려,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이 포함된다. '감정표현의 격려'는 유아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부모가 격려해주는 정도이며(문항 예: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정서 중심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정도이다(문항 예: 아이를 위로해주고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또한 '문제 중심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해 주는 정도(문항 예: 다음에는 어떻게 자전거를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로 정의된다. 한편, 최소화 반응'은 부정적 정서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취급하는 정도이고(문항 예: 아이에게 이 일은 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처벌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벌을 주거나 꾸짖는 반응 정도를 의미하며(문항 예: 아이에게 만약 울기 시작한다면 곧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스적 반응'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정도(문항

예: 아이의 반응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편하다)로 측정된다.

12개 상황에 대한 6가지 반응유형을 나타내는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각 반응유형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산출결과 '감정표현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의 Cronbach's α 는 각각 .94, .91, .93으로 나타났으며,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의 Cronbach's α 는 각각 .86, .95, .77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유형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질문지는 Eisenberg 등(1993)가 제작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유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항(13문항)과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대처반응과 관련된 문항(27문항)을 합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 갈등상황은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아가 고의로 블록을 망가뜨린 상황', '또래유아들과의 놀이에서 소외된 상황' 및 '또래 유아들에게서 놀림을 받은 상황'으로 구성된다.

한편 각 상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Eisenberg 등(1993)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격적 전략(8문항), 감정발산/지원전략(13문항), 긍정적 전략(8문항), 회피적 전략(7문항), 무전략(4문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분석결과 '회피적 전략'과 '무전략' 사이에 높은 상관($r=.85$)이 나타나 합산한 평균인 회피/무전략으로 명명하였다. '공격적 전략'은 문제해결 혹은 감정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유아에게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조절하는 행동이다. '감정발산/지원 전략'은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울음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긍정적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거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절하려는 전략이다. '회피/무전략'은 문제상황을 피하거나 특정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행동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적 전략', '감정발산/지원 전략', '긍정적 전략', '회피/무전략'의 Cronbach's α 는 각각 .96, .92, .90, .95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 253명 유아의 어머니와 12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은 어머니의 보고로,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은 교사의 보고로 이루어졌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259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일부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25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분석으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이 유의할 경우, 사후검증을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centering한 평균을 중심으로 ± 1 SD(상 하)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회귀식 slope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기초분석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1> 참조),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정서조절전략 중 공격적 전략과 감정발산/지원 전략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회피/무전략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공격적 전략과 감정을 발산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한편, 회피나 무전략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

의 문제중심 반응과는 정적상관을, 최소화 반응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유아의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 어머니는 유아의 스트레스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인 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응은 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감정표현 격려,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은 유아의 공격적 전략이나 회피/무전략과는 부적상관을, 그리고 긍정적 전략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도록 격려해주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거나, 또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중심적 반응을 보일 때 유아들은 공격적인 전략이나 회피/무전략 덜 보이는 반면, 긍정적인 전략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격려할수록 감정을 발산하는 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비지지적인 반응(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은 유아의 공격적인 전략, 감정발산 및 회피/무전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공격적 전략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를 별일이 아닌 것으로 최소화시키는 반응을 하거나 또는 처벌적인 반응을 할 때 또는 그로인해 어머니가 불안해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보일 때 유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발산하거나 회피/무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긍정적인 전략은 덜 보였다. 한편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연구변인에서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아래 연구문제 분석에서는 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 (N=253)

	1	2	3	4	5	6	7	8	9	10
1. 까다로운 기질										
2. 감정표현의 격려	.01									
3. 정서중심 반응	-.02	.31***								
4. 문제중심 반응	.14*	.03	.63***							
5. 최소화 반응	-.16*	.00	-.04	-.15*						
6. 처벌적 반응	.01	-.17*	-.33***	-.39***	.21**					
7. 스트레스 반응	-.05	-.00	.00	-.06	.41***	.78***				
8. 공격적 전략	.20**	-.16**	-.35***	-.34***	.15*	.72***	.56***			
9. 감정발산 전략	.18**	.52***	.10	-.01	.11	.08	.19**	.22***		
10. 긍정적 전략	-.01	.04	.60***	.65***	-.30***	-.44***	-.22**	-.44***	-.20**	
11. 회피/무 전략	-.32***	-.10	-.17**	-.20**	.57***	.12	.21**	-.15*	-.07	-.32***
Means	2.52	1.95	2.20	2.25	1.99	2.00	1.94	1.79	2.02	2.24
SD	.59	.72	.66	.71	.61	.81	.49	.93	.64	.78

*p<.05, **p<.01, ***p<.001

2.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 즉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중재변인으로, 그리고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항을 회귀식에 넣어 일련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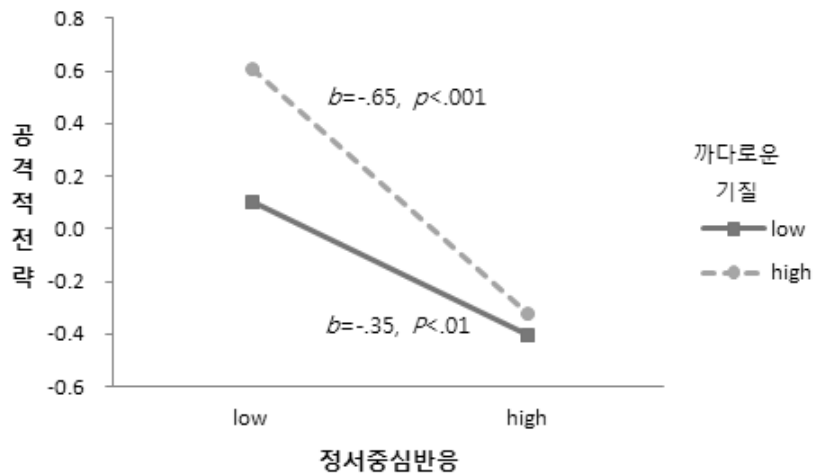
1)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표 2>에서 보듯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의 주 효과와 어머니 반응의 주 효과가 나타나, 유아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유아는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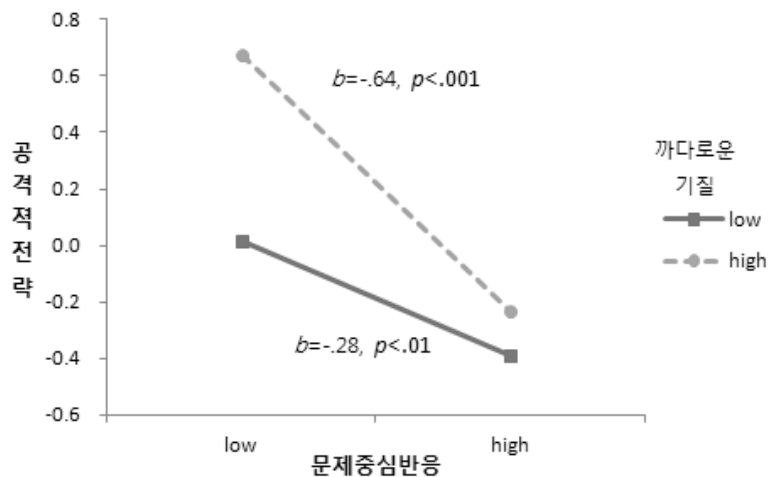
가 감정표현을 격려하지 않을수록, 정서중심이나 문제중심 반응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최소화, 처벌적,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까다로운 기질은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최소화 반응, 스트레스 반응 및 처벌적 반응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특히 어머니가 정서중심의 반응을 적게 보일 때,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b=-.65, t=4.97, p<.001$) 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b=-.35, t=-2.71, p<.01$) 공격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그림 1> 참조).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문제중심 반응을 적게 보일 때,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b=-.64, t=-6.51, p<.001$) 덜 까다로운 유아보다($b=-.28, t=-2.59, p<.01$)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그림 2> 참조). 또한 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의 최소화반응 정도에 따라 공격적 전략 사용에 차



<그림 1>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중심 반응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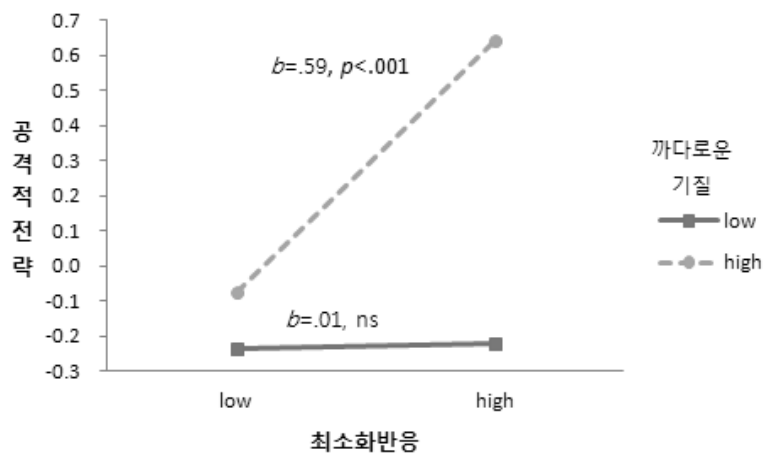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문제중심 반응의 상호작용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01, t=-.10, ns$),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가 최소화 반응을 많이 보일 때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59, t=5.36, p<.001$, <그림 3> 참조).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 때, 특히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b=1.36, t=10.49, p<.001$) 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b=.76, t=5.51, p<.001$)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또한 특히 어머니가 처벌적인 반응을 많이 할 때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b=1.10, t=16.65, p<.001$) 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b=.61, t=10.04, p<.001$) 공격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한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공격적인 전략의 변량을 5~58%를 설명하였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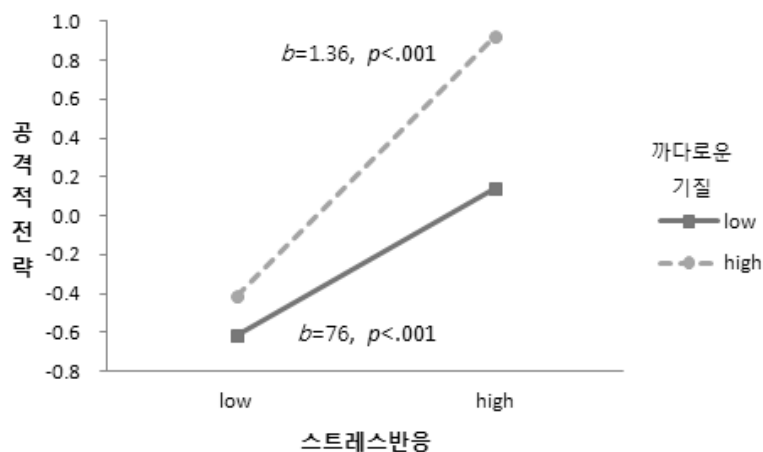
2) 유아의 감정발산/지지 전략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까다로운 기질의 예측력

유아의 감정발산/ 지지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주 효과가 나타나 까다로운 유아일수록 감정을 발산하고 타인의 지지를 요구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감정표현격려, 최소화, 스트레스 반응의 주 효과가 나타나 어머니가 감정표현을 격려할 때, 또는 최소화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때 감정발산 지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까다로운 기질은 감정표현 격려 및 문제중심 반응과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 감정발산/지지 전략을 예측하였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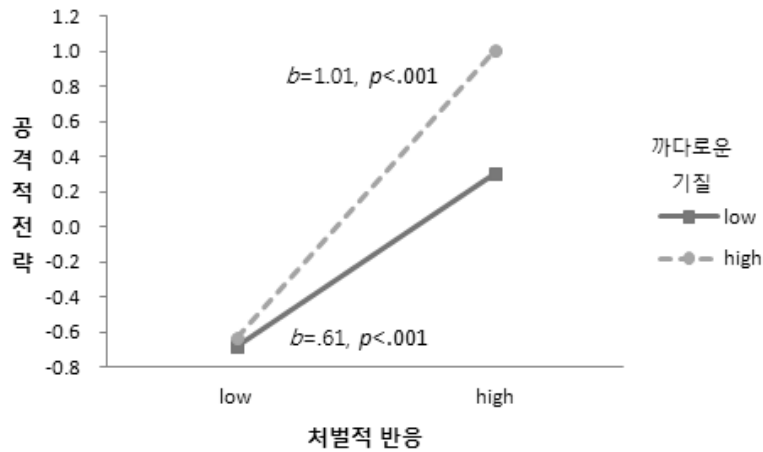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감정표현을 격려하는 반응이 낮을 때에는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히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반응이 높을 때는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b=.61, t=9.59, p<.001$) 덜 까다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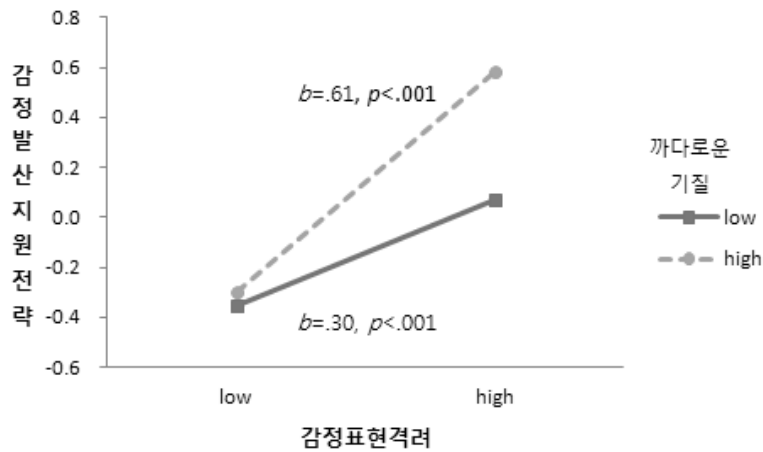
<그림 3>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최소화 반응의 상호작용



<그림 4>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스트레스 반응의 상호작용



<그림 5>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차별적 반응의 상호작용



<그림 6> 유아의 감정발산/지원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감정표현 격려의 상호작용

기질의 유아보다($b=.30, t=4.64, p<.001$) 감정을 발산하고 타인의 지지를 구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그림 6> 참조). 그러나 문제중심 반응과 까다로운 기질간의 상호작용은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성,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감정발산/지원 전략의 변량을 2~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3) 유아의 긍정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표 2>에서 보듯이 유아의 긍정적 전략에 대해서는 기질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최소화 반응, 스트레스 반응, 차별적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정서중심적 또는 문제중심적으로 반응할 때 유아는 긍정적인 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어머니가 최소화 반응이나 차별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을 보이면 유아는 긍정적인 전략을 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까다로운 기질은 감정표현격려 반응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으나 전체 모델의 적합도는 유의하지 않았다($F=.02, df= 4, 249, ns$). 한편,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긍정적 전략의 변량을 2~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4) 유아의 회피/무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표 2>에서 보듯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 까다로운 유아일수록 회피나 무전략을 덜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차별적, 최소화, 스트레스 반응의 주효과가 나타나 어머니가 문제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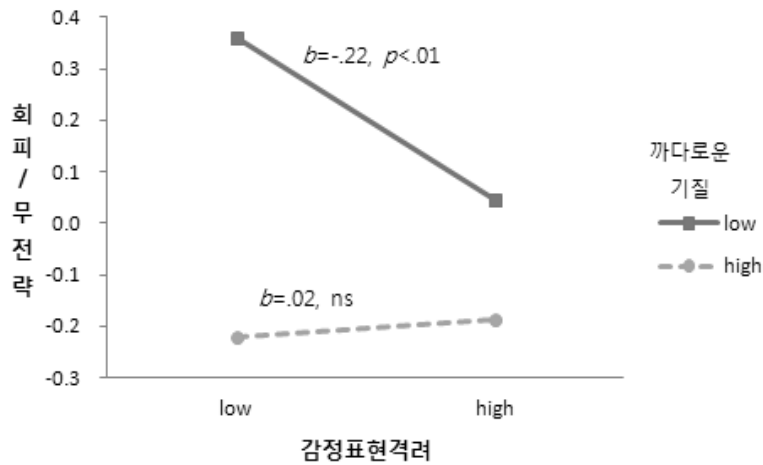
<표 2>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분석

(N=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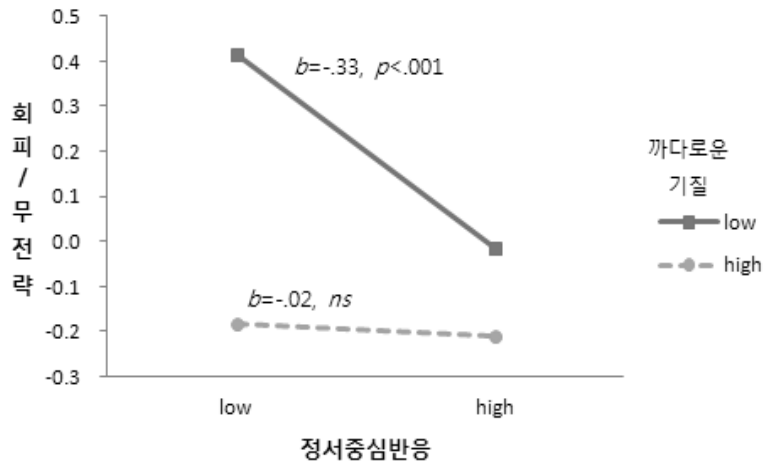
	공격적 전략					감정발산/지지 전략				
	B	SE	β	R ²	F	B	SE	β	R ²	F
까다로운기질(A)	.31	.10	.19**			.24	.06	.22***		
감정표현격려(B)	-.21	.08	-.17**	.05	4.55** (df=3, 249)	.45	.05	.51***	.32	30.60*** (df=3, 249)
A*B	-.07	.13	-.03			.27	.08	.19**		
까다로운기질(A)	.25	.10	.16**			.22	.07	.20**		
정서중심반응(B)	-.50	.08	-.36***	.15	12.53*** (df=3, 249)	.11	.06	.11	.03	2.95* (df=3, 249)
A*B	-.25	.14	-.11**			.09	.10	.06		
까다로운기질(A)	.35	.09	.22***			.17	.07	.15*		
문제중심반응(B)	-.46	.08	-.35***	.18	15.14*** (df=3, 249)	-.01	.06	-.01	.03	3.17* (df=3, 249)
A*B	-.30	.12	-.15**			-.18	.09	-.13*		
까다로운기질(A)	.44	.10	.28***			.21	.07	.19**		
최소화반응(B)	.30	.09	.20***	.10	7.91*** (df=3, 249)	.25	.08	.19**	.06	4.65** (df=3, 249)
A*B	.49	.15	.20***			.02	.14	.01		
까다로운기질(A)	.42	.08	.26***			.24	.07	.22**		
스트레스반응(B)	1.06	.09	.56***	.38	39.87*** (df=3, 249)	.15	.07	.14*	.04	3.72** (df=3, 249)
A*B	.51	.16	.16***			.13	.11	.08		
까다로운기질(A)	.32	.06	.20***			.20	.07	.19**		
차별적반응(B)	.81	.05	.71***	.58	89.19*** (df=3, 249)	.06	.05	.08	.02	2.48* (df=3, 249)
A*B	.34	.07	.20***			.03	.08	.02		

	긍정적 전략					회피/무전략				
	B	SE	β	R ²	F	B	SE	β	R ²	F
까다로운기질(A)	-.08	.09	-.06			-.35	.08	-.28***		
감정표현격려(B)	.04	.07	.04	.02	2.20 (df=3, 249)	-.10	.06	-.10	.11	8.85*** (df=3, 249)
A*B	-.32	.11	-.19**			.21	.10	.13*		
까다로운기질(A)	-.02	.07	-.02			-.34	.08	-.28***		
정서중심반응(B)	.70	.06	.59***	.35	34.73*** (df=3, 249)	-.17	.06	-.16**	.14	11.01*** (df=3, 249)
A*B	-.10	.10	-.05			.26	.11	.15*		
까다로운기질(A)	-.14	.07	-.10*			-.34	.08	-.27***		
문제중심반응(B)	.72	.05	.66***	.42	46.95*** (df=3, 249)	-.17	.06	-.17**	.12	9.40*** (df=3, 249)
A*B	.02	.08	.01			.15	.10	.09		
까다로운기질(A)	-.08	.08	-.06			-.31	.06	-.25***		
최소화반응(B)	-.39	.08	-.31***	.08	6.40*** (df=3, 249)	.62	.06	.53***	.38	39.16*** (df=3, 249)
A*B	.01	.13	.00			-.20	.10	-.11*		
까다로운기질(A)	-.04	.08	-.03			-.40	.07	-.33***		
스트레스반응(B)	-.34	.10	-.21**	.03	3.13* (df=3, 249)	.29	.09	.20*	.13	10.53*** (df=3, 249)
A*B	-.10	.17	-.04			-.24	.15	-.10		
까다로운기질(A)	-.01	.08	-.01			-.39	.07	-.32***		
차별적반응(B)	-.42	.05	-.44***	.18	14.86*** (df=3, 249)	.11	.05	.13*	.12	9.43*** (df=3, 249)
A*B	.00	.08	.00			-.18	.08	-.13*		

*p<.05, **p<.01, ***p<.001



<그림 7> 유아의 회피/무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감정표현 격려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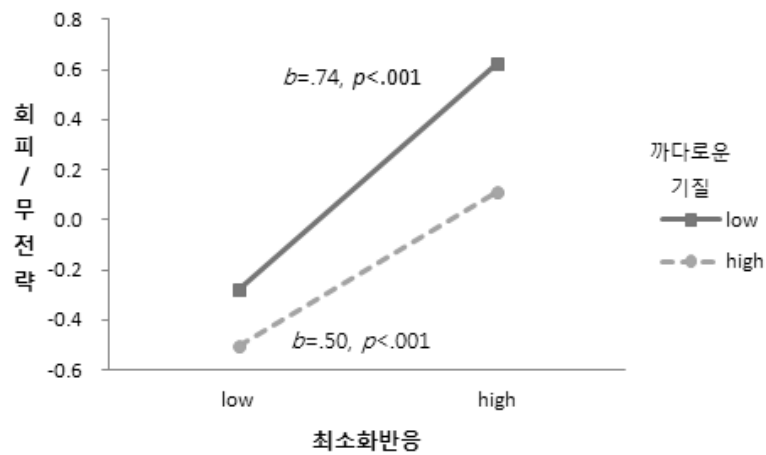


<그림 8> 유아의 회피/무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정서중심 반응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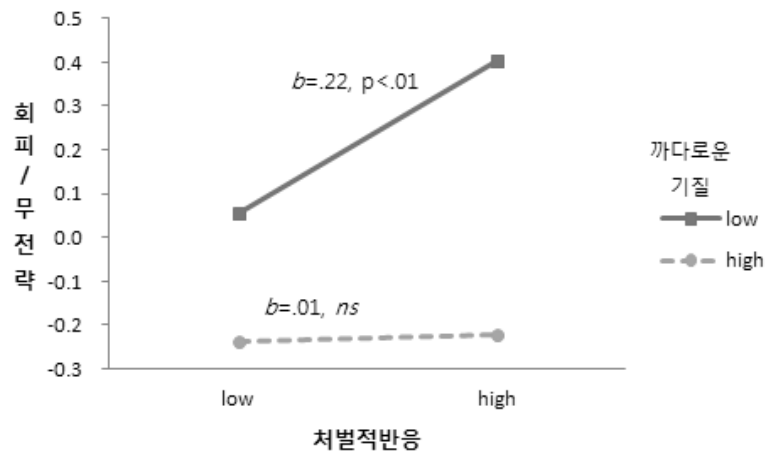
이나 정서중심 반응을 하지 않을수록, 유아는 회피/ 무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이나 최소화 반응,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회피/ 무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정표현격려, 정서중심, 최소화, 처벌적 반응이 까다로운 기질과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표 2> 참조).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반응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02, t=-.29, ns$), 덜 까다로운 유아는 어머니가 감정표현격려 반응을 덜 할수록 회피/무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22, t=-2.73, p<.01, <그림 7> 참조$). 이와 유사하게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반응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02, t=-.22, ns$), 덜 까다로운 유아는 어머니가 정서중심의 반응을 덜 할수록

회피/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3, t=-3.93, p<.001, <그림 8> 참조$). 한편 특히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이 높을 때 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b=.74, t=8.77, p<.001$)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b=.50, t=5.96, p<.001$) 회피/무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또한 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에 따라 회피/무 전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b=.01, t=0.13, ns$), 덜 까다로운 유아는 어머니가 처벌적인 반응을 많이 보일 때 회피/무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22, t=3.05, p<.01, <그림 10> 참조$). 한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들은 유아의 회피/무전략의 변량을 11~38%를 설명하였다(<표 2> 참조).



<그림 9> 유아의 회피/무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최소화 반응의 상호작용



<그림 10> 유아의 회피/무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처별적 반응의 상호작용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을 중재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주 효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만 3세~5세 유아(평균연령 만4세) 253명과 그 어머니들이며,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어머니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유형에 관한 질문지는 교사보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공격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 유형 모두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공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표현 격려, 문제중심, 정서중심 반응을 덜 보일 때, 그리고 최소화, 처벌적,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보일 때, 공격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 반응들이 유아의 공격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기질이 더 까다로운 유아의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각성이나 정서적 강도 등 기질적 특성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임희수 · 박성연, 2002; 박지숙 등, 2009; Eisenberg,

2000; Eisenberg & Fabes, 1994; Garner & Power, 1996)이나 부모의 처벌적인 반응이나 스트레스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해치는 반면 문제중심적이고 정서중심적인 지지적 반응이 정서조절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대부분의 연구들을 지지한다(강희연·강문희, 1999; 서혜린, 이영, 2008;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8; Fabes et al., 2001).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공격적 정서조절 전략은 타고난 특성인 기질 뿐 아니라 어머니의 반응행동의 영향 또한 상당히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까다로움이 덜한 유아의 경우보다는 더 까다로운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공격적인 정서조절 전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같은 정도의 환경적 영향이라도 기질적 특성에 따라 아동의 행동발달에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유아의 감정발산/지원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유아의 감정발산/지원 전략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격려하거나 또는 반대로 최소화 할 때,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타낼 때, 유아는 감정을 발산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활동적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낮고, 정서적 강도가 높을수록 감정발산과 같이 정서를 겉으로 표현한다는 연구들을 지지한다(김지윤 등, 2008; 박지숙 등, 2009; 임희수·박성연, 2002; Eisenberg, 2000; Fabes & Eisenberg, 1992). 또한 어머니가 감정표현을 격려하는 경우 분노나 공격성 표현 등 외현화 문제와도 관련된다는 Eisenberg의 연구결과들(Eisenberg et al., 1992; Eisenberg & Fabes, 1994)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제한설정이 부족한 경우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고(Gottman & Katz, 1989)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체로 긍정적인 대처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강희연·강문희, 1999; 김문신·김광웅, 2003; 서혜린·이영, 2008)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련을 보이지 않은 한경원과 신혜원(2009)의 결과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 연구에서 상관관계만을 보았기 때문이거나 강희연과 강문희(1999)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어머니의 반응유형보다는 엄격한 통제태도 또는 수용적 태도 정도를 파악한데 기인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 행동은 유아의 감정발산/지원 전략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까다로운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표현 격려 반응이 낮을 때는 까다로운 기질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반면, 감정표현격려 반응이 높을 때는 더 까다로운 유아의 감정발산/지원전략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도록 격려하는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과 관계가 있으며 유아의 기질에 따라 특히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유아의 긍정적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정서중심적으로 또는 문제중심적으로 반응할 경우 유아는 긍정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반면, 최소화나 스트레스 반응, 또는 처벌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유아는 긍정적인 전략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 반응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의 반응 행동만이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예측하는 주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강희연·강문희, 1999; 서혜린·이영, 2008; 임희수·박성연, 2002). 그러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중학생의 정서전략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노지영과 정윤경(2010)의 결과와는 다르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기질의 중재가능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반응행동 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전략을 예측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볼 때 유아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키는 데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타고나는 기질적 특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문제 중심적 또는 정서 중심적 반응 등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면 부정적 정서나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가 유아의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거나 처벌하는 반응들은 긍정적인 전략의 사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아의 회피/무 전략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의 예측력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성이 유아의 회피/

무전략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 기질의 주효과가 나타나 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회피/무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덜 까다로운 유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야기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 장면을 회피하거나 어떠한 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가 정서중심이나 문제중심 반응을 덜 보일수록, 그리고 최소화나 스트레스 반응 또는 처벌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는 회피/무전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면 자녀가 회피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Eisenberg & Fabes, 1994; Krause et al., 2003)나 처벌적, 최소화, 스트레스적 반응은 역기능적인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노지영과 정윤경(2010), 강희연과 강문희(199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유아가 겪은 부정적인 감정상태에 대해 어머니가 보다 지지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경우 유아는 비효율적인 정서조절이나 대처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감정표현격려나, 정서중심 반응, 최소화 및 처벌적 반응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어머니의 이러한 반응행동이 회피/무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덜 까다로운 유아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덜 까다로운 유아는 어머니가 정서중심 반응이나 감정표현격려를 덜 할 때, 그리고 어머니가 최소화나 처벌적 반응을 많이 보일 때 더 회피/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의 공격적 전략(+)이나 감정발산/지원 전략(+), 회피/무전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니었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중심 반응이나 문제중심 반응은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처벌적이거나 스트레스적, 최소화 반응은 긍정적 전략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며 공격적 전략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감정표현 격려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에서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내, 어머니의 감정표현 격려 반응이 낮을 때는 유아가 공격적 전략을 많이 보이는 한편, 감정표현 격려 반응이 높을 때는 감정발산 전략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유아의 공격적 전략이나 회피/무전략은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의 반응유형간 상호작용이 나타나 공격적 전략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지지적 또는 비지지적 반응의 영향이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경우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유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서 더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Dual Risk Model(Barry et al., 2008)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무전략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지지적, 비지지적 반응의 영향이 덜 까다로운 경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정서조절전략 내용에 따라 까다로운 기질의 영향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우선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어머니보고로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료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수 있으며 사회적인 바람직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적 경험 중 특히 부정적 정서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중요성과 함께, 어머니의 반응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가 유아의 기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정서사회화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희연·강문희(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 유아의 대처 반응 및 또래 수용 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김문신·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 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6(1), 3-13.

김지윤·도현심·김민정(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노지영·정윤경(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 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박유경(2009).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유형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숙·박성연(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16.

박지숙·임승현·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30(3), 85-98.

- 박혜경 · 박성연(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서혜린 · 이영(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양병화(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서울.
- 임희수 ·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한경원 · 신혜원(2009).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아의 성, 연령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5), 137-153.
- 한유진(2007). 상호작용 상황에서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15.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 Barry, R. A., Kochanska, G., & Philibert, R. A.(2008). G×E interaction in the organization of attachment: mothers responsiveness as a moderator of children's genotypes.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49(12), 1313-1320.
- Carson D. K., Council J. R., & Gravley J. E.(1991) Temperam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children's reactions to hospitalizatio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2(3), 141-147.
- Calkins, S. D., Gill, K. L., Johnson, M. C., & Smith, C. L.(1999).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redictors of social behavior with peers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8(3), 310-334.
- Conway, A. M.(2005).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effortful attentional control and positive affec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6(2-B), 1195.
- Davidov, M., & Grusec, J. E.(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erry-berry, D., & Rothbart, M. K.(1988). Arousal, affective, and attentional components of adult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3-966.
- Eisenberg, N.(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597.
- Eisenberg, N.(2006). Prosocial Behavior. B. G. George & M. M. Kathleen (Eds), *Children's needs III: Develop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313-324).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55, 57-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1996). Parent'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 : Procedures and scoring. Unpublished scale available from the authors.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2003).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Garner, P. W., & Power, T. G.(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4), 1406-1419.
- Gottman, J. M., & Katz, L. F.(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Kliewer, W., Fearnow, M. D., & Miller, P. A.,(1996). Coping socialization in middle childhood: Tests of maternal and patern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67, 2339-2357.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 199-213.
- Larsen, R. J., & Diener, E.(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Miller, S. M., & Green, M.(1985). Coping with threat and frustration: Origins, nature, and development. In M. Lewis & C. Saarni (Eds.), *Socialization of emotions*. NY: Plenum Press.

- 접수일 : 2011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11년 09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26일